

## 공공부문의 품질경영 추진

김 원 동

한국전력공사 품질보증팀 부장

### 1. 도입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자국의 이익 보호와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0년대의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항들이 변화되어 어느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의 그 결과나 앞으로 발생될 격동의 양상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국가 또는 어느 기업이든지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변신도 서슴지 않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기업에서의 품질경영

WTO 출범 이후 시장경쟁의 가속화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선·개혁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국경없는 국제경쟁력 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과 경영

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20세기가 「생산성의 시대」 라면 21세기는 「품질의 시대」 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세계적 품질전문가 Juran의 말처럼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비자 욕구가 가격중심에서 고품질, 다양한 디자인 제품, 충실한 서비스 및 제조물 책임의 증대 등으로 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창출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우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도구로서 품질경영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한경쟁 체제에서 기업의 위치는 품질을 통한 고객 중시의 경영전략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가는 품질경영의 기본이념이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경영기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생존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품질 성장의 추진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추진력을 무조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품질선진국들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까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 품질경영의 강력한 지지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성과 중의 하나로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미국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품질에 역점을 두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품질경영은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라고. 사실 21세기의 문턱에 서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최대의 생산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선진국들은 공공부문도 시장논리에 따라 그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 3. 공공부문의 특성

공공부문은 최대의 서비스 기업이면서 동시에 독점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점기업에게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도산한다는 위기감이 없다. 공공부문은 경영 효율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과는 달리 말로는 경영감각이나 코스트 등을 말하면서도 시장의 논리에는 둔감하다. 즉 기업이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근무자들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이 속한 부서와 운명 공동체가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나 기업은 예외 없이 조직이 공동체화 할 경우 이미 그 조직은 붕괴가 시작된다. 왜냐 하면 공동체화한 조직속에서는 고객지향의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는 생산자 지향의 상품을 고집하는 경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원래 상품이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자 지향의 조직 속에서는 본래의 목적 추구보다도 구성원 자신들의 입장과 복지를 더 중시하게 되어 내부 경쟁을 최대한 없애려 하며 고객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 4. 공공부문의 품질경영 적용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조직이 고객위주로 생각을 전환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속의 구성원이 공헌의욕을 가지도록 공지를 키워주고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조직의 생산성이란 구성원의 능력보다 오히려 태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집단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특히 변혁의 시대에 직면하여 다양해져가는 고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성원이나 특정 부서의 활성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조직 전체 내지는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장 풍토 그 자체의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의 조직은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목표나 의지에 비해서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혁이 부진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방대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념과 방법론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경영혁신의 가장 완전한 종합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품질경영이 공공부문의 혁신에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 조직의 경영혁신에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품질경영을 유력한 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본격적인 품질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령 12637호 “연방정부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서명한 이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상무부가 주관하는 말콤

볼드리지상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행정기관의 품질경영을 위해서 경영 및 예산부에서 주관하는 연방품질협회 및 연방품질상을 제정했다. 그 외에도 연방품질협회는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이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와 정보의 중개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은 조직이 산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3대 특성인 품질(Q), 가격(C), 납기(D) 중에서도 품질을 가장 중심적인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품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경영 방식이다. 여기서 정의하는 품질이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특성”을 의미하므로 품질경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고객 만족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Q, C, D의 3가지 특성은 고객만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요소들을 별개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Big Q(Big Quality)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으로서의 국민과 기업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 지향적 사고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것은 공공서비스 기능을 재정의하고 설계하는 올바른 설계 품질의 확보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고객요구의 보다 나은 충족감을 느끼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전구성원이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고객 만족에 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은 물론 구성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조직에서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에 자긍심을 갖는 구성원만이 자신의 직무인 고객봉사에 진심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세계는 미국경제에 대해 ‘과연 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서 더욱 큰 경제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렇다면 한동안 품질전쟁에서 일본에 밀려났던 미국이 세계수준의 품질을 창출하여 미국의 우위를 세계시장에서 탈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고객만족지향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없는 기업은 최고경영자도,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속에 문화와 체질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의 운영을 통해 품질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확신한 미국은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사회 전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나가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기업의 내실을 기하는 경영도구로서 이상의 요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품질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 곧 개인과 기업의 품질수준이 생존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시장인 세계속에 세계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만이 살아남고 있는 작금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도, 기업도 모두 생존전략으로서 품질경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품질경영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공공기관에 품질경영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품질경영 모델 공공기관의 선정이다. 정부 각 부처 산하의 공기업 중에서 품질경영 모델기업을 선정, 공공부문의 표준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국전력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모델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기의 품질이 곧 제조업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품질경영 전문가의 양성이다. 대학에 품질경영과 관련된 학과 및 과목을 증설하여 품질경영 전공 석박사의 논문 작성을 지원하고, 품질경영으로 학위를 받은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연수하도록 배려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뿐만 아니라 문과계 대학에 품질경영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개설하

여 품질경영이 전 부문에 균등히 확산되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인 요시다 고시쿠는 '왜, 미·일 국제경쟁력은 역전됐는가'라는 그의 논문에서 일본의 품질경영이 서비스산업 및 기업의 서비스 부문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해 일본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전 부문에 고루 양성되지 못한 품질전문가의 부재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품질경영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개선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품질 본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이다. 이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4, 5년 동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단기성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의 정서를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가 아니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품질경영 확산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차원의 기반구축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대통령, 장관 및 차관급 등 고위관료가 주도하는 품질리더십과 고객만족개념, 개선팀 운영에 대한 관심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넷째, 국가적인 품질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즉, 품질문화운동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도 널리 전개하여 기업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직원, 크게는 전국민의 품질마인드 확산을 위해 품질경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 초기단계부터 점차 수준을 높여 가면서 전국민의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품질경영 교육, 품질의 달 행사 및 품질개선팀 경진대회 등도 품질경영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품질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의 기업들도 보다 견실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기업문화를 개발 정착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기업

구성원들의 만족을 최대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고객감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5. 정부의 품질경영 정착노력

산업자원부는 지난 '98년 10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경영체계 개선전략의 일환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확산이 시급해짐에 따라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에 의거,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의 단편적인 품질경영 진흥정책 중심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의 정부주도적 품질관리 확산정책에서 21세기를 대비, 기업과 학계, 관련단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한 능동적 품질경영 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마인드 확산을 통해 업계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품질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품질경영의 개념이 제조업 외에 공공부문 및 서비스부문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바, 국내 공공부문의 품질경영 도입을 촉진하여 품질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 부문으로 품질경영 마인드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추진 방안으로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미흡한 공공부문의 품질경영체제 구축 인식확산을 위해 품질경영상에 공기업 부문을 신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영평가지표인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에 품질경영 요소 반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 평가위원회의 품질경영 전문가 참여 및 경영평가시 품

질경영 요소의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그외에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ISO 인증범위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심사범위를 보유하고 있는 심사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세부 인증심사기준 및 점검표 개발,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이행모델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실시 확대될 계획이다.

## 6. 맺음말

20세기 후반은 '기술의 미국, 품질의 일본, 가격의 한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약화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21세기 아시아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품질의 한국,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일만이 초일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밝혀둔다.

이제 품질경영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전국민의 품질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국가 품질시스템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국민이 품질을 체질화하는 품질문화 구축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영혁신을 해나가야 하며 모방 수준을 넘어 제대로 된 품질경영 모델 확립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 품질을 급격하게 개선시키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6시그마 전략이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도 많은 기업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영혁신 기법이나 품질개선 프로그램이라도 과거의 것들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6시그마도 과거부터 발전되어온 QC, TQC, QM, TQM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영혁신기법이 아니며, 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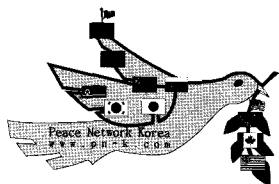
대의 기법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보완시킨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QM은 80년대 후반 미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본에 빼앗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으로서, '87년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파한 경영혁신 기법이다.

제1회 말콤볼드리지 품질상 수상은 6시그마 전략을 최초로 도입한 모토롤라사가 수상하였는데 이는 TQM과 6시그마는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목적하는 바가 같은 것을 의미하며, 단지 추진방법에 있어 모토롤라사가 명확한 목표로서 '불량률 6시그마(3.4PPM)'라는 통계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모토롤라사가 성공을 거두자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면서 "6시그마"란 용어가 대중화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품질경영(TQM)과 6시그마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영혁신 도구라도 그것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하게 선택, 개선하여 접목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영혁신기법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품질경영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나온 경영방식, 제도, 기법 중에서 가장 전사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경영혁신 기법임에 틀림없다. 또한 많은 경영혁신 제도나 기법을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틀로서는 더 이상의 기법이 없을 듯하다. 따라서 품질경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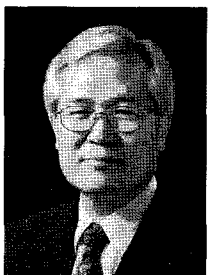
### ·~ 참고자료 ~·

1. 품질경영 장기 발전방향 연구, 1996, 국립기술품질원
2. 왜, 미·일 국제경쟁력은 역전됐는가, 1998, 요시다 고사쿠, 품질경영(98.6)
3. 총체적 품질경영과 리더십, 이상문 저, 형설출판사
4. 6시그마전략, 품질경영(98. 10~99. 4), 한국표준협회



## 두만강 푸른 물에

### 3. 두만강 푸른 물에



#### 윤갑구

- 한국전력공사 22년 재직
- 에이스기술단 대표이사
- 피스네트워크코리아 부회장
-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강사 역임
- 범종단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운영위원
- 국민회의 경제대책 운영위원
- 저서 : 생명과 재산의 파수꾼, 전자보안시스템, 부부 자리 찾기 등 다수
- 논문 : 민감한 전기전자기기에 전압외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동북아지역의 전력경제와 청정환경을 위한 평화망 사업추진 등 다수

#### 차례

1. 함께 가는 여정
2. 가노라 삼각산아!
3. 두만강 푸른 물에
4. 두만강을 품에 안고
5. 북한산업의 청진기
6. 같은 민족인데!
7. 황금의 삼각주
8. 죽어서도 한데 묻힌 온달과 평강
9. 관광지가 된 러시아 군항
10. 숨쉬는 바이칼을 마시자!

#### 만만디

**나까야마** 만년에 베이징(北京)에 왔다. 비행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입국심사 처리는 빠르다. 그러나 짐은 여전히 늦게 나온다. 한국 측은 그게 싫어서 짐을 모두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작은 손가방으로 준비했다. 따라서 모두 나란히 먼저 통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인의 일부는 X선으로 여행가방을 검사 받고 있다. 세관원은 그 사람의 동작과 복장 등을 관찰하면서 하는 것 같다.

세관을 통과하니깐 많은 사람이 마중 나와 있고 한국 측은 이미 통관해서 한데 모여 우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윤갑구** 한국기술사들은 허단장의 권고로 기내에 들고 들어갈 만한 작은 가방으로 준비했다. 준비모임 때 불참했던 신회장은 큰 가방을 가지고 공항에 나왔다가 부랴부랴 작은 가방으로 바꾸게 되었다.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은 안 했을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했다.

나는 전기품질을 측정하려고 특수한 측정기를 제작해 가느라 가방이 세 개나 되었고 상당히 무겁고 딱딱했다. 모든 짐을 기내에 들고 들어가고 내리는 일이 매우 번거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측 일행들이 따로 짐을 부쳤다가 찾느라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공연히 우리



들만 짐을 들고 내리는 헛고생을 한 꼴이 됐다. 비행기를 탈 때 작은 가방으로 짐을 옮겨 넣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신회장은 화가 났겠지만 원체 짐꾼으신 분이시라 좀처럼 기분상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거나 생각된다. 중국에 가면 감정 조절을 잘하고 천천히 느리게 행동하는 '만만디(漫漫的)'를 습득하라는 선배의 충고가 떠올랐다.

**나까야마** | 작년에 니이가타현의 히라야마(平山)지사가 지린성(吉林省)을 방문할 때 경제단체의 응원단으로 참가했었다. 그때, 지사의 가이드를 맡고 있었던 아이 쎅디(AI SHENGDI, 艾生地)씨가 말을 걸어온다.

「아마도 작년에 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로 말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특히 한국단원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연을 말하고 나니 모두가 납득한 듯 했다.

여행가방을 짐수레(Cart)에 싣고, 150m 정도 걸어 버스까지 가져갔다. 언제나 하는 일이다. 오키나와(沖縄)가 반환되었을 때, 교통체계의 변동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일본의 히노(日野)자동차의 중고품이라 생각되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낡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중국에 시집 와서 귀하게 대접받는 것 같다.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건국문(建國門, Jianguomen)에 가까운 장부궁호텔(長富宮飯店 : Changfugong)에 들어갔다. 뉴오타니(New Otani) 계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 어쩐지 기오이쥬(紀尾井町) 거리의 호텔과 같은 점이 있다. 긴 프론트, 매점, 그리고 티 라운지가 그대로이다.

**윤갑구** | 나는 프론트에서 베이징 시내 지도와 호텔 안내서를 챙겼다. 그리고 지도에서 내가 숙박할 호텔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 혹시 단체로 외출했

다가 낙오되거나 길을 잃어버릴 것에 대비해서이다. 만사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낯선 곳에 도착하여 불안했던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 지도 위에 표기한 한자는 '간자체'로서 우리 나라에서 쓰는 한자보다 훨씬 간편한 약자로 되어 있어서 얼른 알아보기 힘들다.

### 화교 자본에 의한 건축 붐

**나까야마** | 방이 배정되었다. 일단 자기 방에 들어갔다. 다가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오늘은 일요일, 베이징 시내 관광일정이 잡혀 있다. 천안문 광장에 잠시 발을 들여놓고 사진을 찍는다. 일단 일본과 한국이 섞여 있지만, 아직 연장자들을 빼고는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대로 서로 사진을 찍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일요일의 광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적다. 여전히 장사꾼이 시끄럽다.

고궁(故宮, Gu Gong)을 견학하기로 하고 오문(午門) 앞에서 전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입장권을 사서 단체 입장을 했다. 확실히 셀 수는 없지만 이곳 고궁에는 열번은 넘게 와 본 것 같다.

현지에서 나온 한국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북해공원(北海公園, Beihai Park) 쪽으로 나갔다. 역시 여기는 언제나 혼잡하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팀과 더워서 평탄한 코스를 고르는 팀, 두개 조로 나누었다. 고마바야시씨, 오푸무라씨, 그리고 나는 평탄 코스, 여기에 한국 측 노장패 몇 명이 동행했다. 나무숲의 산책길을 지나 서문으로 빠진다. 도중에 몇 명이 청나라 때의 풍속인 인력거를 탔었는데, 탄 쪽이 구경거리가 됐다.

그 후 베이징 긴자(銀座) 거리인 옥부정(玉府井, Wangfujing)을 견학했다.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상업점의 개축공사 등, 여전히 건축 붐이다. 싱가포르와 홍콩(香港)의 화교자본이라는데 이것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동양제일의 변화가 된다고 한다. 중국에는 올봄부터 가일층 패션 기운이 더해졌다던데, 젊은 층은

예상 밖으로 적다. 힘있어 보이지 않는다. 변화가가 이동하고 있다. 결국 역 방향의 서단(西單, Xidan) 등의 새로운 변화가가 유행의 거점이 되는 것은 아닐는지?

일단 호텔로 돌아왔다. 오늘밤은 일·한 결단식의 저녁모임이다. 베이징 덕의 묵은 방을 골라서, 두 개 탁자를 놓고 섞여 앉는다. 완전히 일·한이 혼합되었다. 한국 측에는 일어난 거의 모두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영어 쪽이 유창하다는 사람이 많다. 노장패는 당연히 일어이다. 따라서 통역이 없어도 충분히 통한다. 특히 한국 측 노장패의 일어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 우리 일본측 사투리를 쓰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

처음에는 맥주, 다음에는 배갈(老酒), 그리고 마오타이주(茅台酒)까지 이어진다. 주량이 늘어나면서 일어서서 서로 술을 따르고 시간도 길어진다.

일본측 젊은 두 사람과 부산에서 큰 기초회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이씨는 베이징 밤거리 탐방으로 기분을 낸다. 안내는 지린(吉林)에서 온 가이드 아이씨가 맡는다. 이씨는 1930년대 이전 출생은 안테리고 간다고 우리를 견제한다. 즉 나이가 많은 우리보고는 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즐겁다.

호텔에 돌아와서 제각기 방에 들어가는 사람과 관내를 산책하는 패로 나누어진다. 매점은 열려있는데, 외국인 상대이므로 모든 상품이 아주 비싸다. 어떤 것은 일본 국내와 거의 같은 정도인 것도 있다. 고마바야씨는 낮에 환전한 돈으로 도자기를 샀다.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있는데 보기에다 좋다. 일본 국내에서 다기(茶器)로 써도 충분한 정도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비싸다. 아마도 일본 사람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행과 떨어져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목욕을 했다. 드디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 북조선 입국비자

**윤갑구** | 북한입국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생겼다. 6·25사변 때 월남한 김선생이 「출

생지를 어디로 쓰는 것이 좋겠소?」하고 질문했다. 나는 무심코 「사실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다른 분이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김씨가 출생지를 북한으로 적으면 과거에 북한을 배반하고 남한으로 온 것인데 비자를 내 주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의 방북이 거절될 수도 있지 않겠소?」 하였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일행은 고민과 갈등을 하며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씨는 비자신청서를 들고 왔다갔다하며 밤을 지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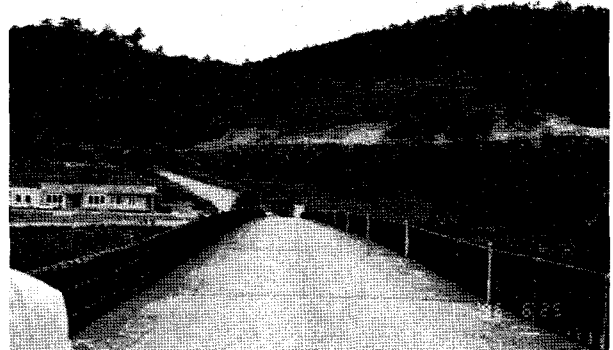
**나까야마** | 베이징의 아침이다. 감람중인 탓인지 아주 속이 편하다. 혼자서 로비 1층의 식당으로 갔다. 뷔페 형식이다. 그것이 나는 좋다. 양과 내용물 모두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과 약간의 과일 정도로 마쳤다. 거기에 한국팀 최연장인 김씨가 나타나 같은 식탁에 합석한다.

「나까야마씨! 저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

「왜요?」

「저는 6·25 동란 때 이북에서 단신 남하했습니다. 실은 이북 출신입니다. 사실대로 써도 되겠지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지요. 당신이 떨어



중국 원정교에서 건너다 본 북한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저 남게 된다면 나도 남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괜찮겠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김씨와 같은 입장이라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미지의 나라이다. 김씨 기분은 잘 알겠다.

### 일등 신랑감

**| 나까야마 |** 식후 북조선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얻기 위해, 진보과장과 아이씨가 가고, 나머지 즉, 정식 단원은 어제와 같이 시내관광에 나섰다.

텐단(天壇)을 견학했다. 제일 짧은 견학 코스를 고른다. 참말로 짧았다. 옆에서 텐단에 들어가자마자 돌아오는 것뿐이다. 고궁이나 만리장성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텐단도 역시 첫 방문은 아니다. 15년 전에는 비는 시간을 내서 혼자 왔었던 생각이 난다.

텐단 견학이 끝나고, 다음은 한국 측의 희망으로 한 방약을 사기로 하여 베이징 의료보건부부부로 갔다. 그 건물 속에는 관광객 전용의 방이 있다. 비좁은 방 양쪽으로 1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학교식 2인용 의자와 책상이 놓여 있다. 여행사와 제휴되어 있는지 낯설지 않다. 처음에는 "염력(念力)"을 써서 "통전(通電)"을 보여 줌으로써, 그 신비성을 나타냈다. 그 후, 한방사에 의한 진단이 시작되었다. 내가 제일 먼저 지명됐다. 맥을 잡고, 눈을 보고 하더니 딱히 나의 병세를 맞춘다기보다는 비슷한 말을 한다. 보통은 한방의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사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식사를 자제하며 다이어트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일로 약을 살 마음은 없었다. 딱 부러지게 거절했다. 그랬더니 언짢은 얼굴로 다른 단원을 찾는다. 과연 장사꾼이다. 허씨하고 한 두 사람의 한국단원이 지병(持病)에 좋다는 약을 샀다. 꽤 비싸 보였다. 언제나 생각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사 주어서 나는 살았다.

**| 윤갑구 |** 우리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에 먹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내가 어

렸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사변의 폐해로 가난할 대로 가난한 때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진지 잠수셨습니까?」, 「밥 먹었나?」, 「더 먹어라」가 인사말이었다.

이제는 먹을 것이 해결되고 보니 「안녕하셨습니다?」, 「잘 있었니?」, 「더 놀다가라」로 인사말이 바뀌었다. 전에는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관광코스에까지 값비싼 한방 견학을 넣고 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니 중국도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단다.

중국 처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랑감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데 60년대에는 군인이 최고였고, 70년대에는 지식인을 선호했단다. 60년대에는 가난해서 먹고 사는게 시급한 문제인지라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군인을 찾았는데, 살다보니 너무 딱딱하고, 부자유스러움을 느꼈단다. 70년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사랑을 할 줄 아는 지식인을 좋아했단다. 80년대에는 돈의 위력과 사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부를 제일로 여겼는데 살아보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이 다반사여서 사랑 나눌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90년대에는 돈과 지식을 겸비한 재벌 2세를 제일 좋은 신랑감으로 꼽는단다. 이런 흐름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공통된 것 같다. 오늘날 우리 나라 처녀들의 일등신랑감은 누구일까?

### UNIDO의 장미빛 꿈

**| 나까야마 |** 드디어 점심때 가까이 되어 호텔에 돌아왔다. 정오부터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베이징 주재원과의 회합이다. 호텔 1층에 있는 중화 음식점 「무단(牡丹)」에 예약되어 있었다. 2개의 식탁이 준비된 방에 일본측과 한국 측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한쪽 식탁에 이안·데이비스 박사(Dr. IAN DAVIES)와 일본어 통역을 겸한 구보타 덴코(久保田典子)씨, 그리고 한국어 통역까지 3인이 앉았다. 한국인 통역 옆에 허씨가 앉고, 데이비스씨 구보타덴코씨 옆에 내가 앉았다. 우리들 쪽에서 초대 손님 세 명이므로 일본도 세 명으로 맞추기로 양국간에 정했는데, 허씨가 착각해서 네 명을 앉힌다. 연장자 중의 한사람인 한국의 신씨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두번째 식탁으로 내려갔다. 이 일에 대해 허씨가 신경을 쓴다. 역시 서울대학교 선배에 대한 심려인 것이다. 데이비스씨는 영어를 천천히 하여 우리들이 듣기에도 편하다. 그래도 구보타씨가 정확하게 통역하여 준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 안 해도 된다. 쉽게 말해주어서 살았다. 그렇기는 하나 어학력이 없음이 서럽다.

UNIDO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한 개요와 외국의 투자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니이가타에 대한 설명도 꽤 자세하였다. 재단법인 환일본해연구소와 꽤 교류가 있는 것 같다. 9월에 실시할 나진 포럼 이야기도 나왔다. 어쨌든 현지로 가보아야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간담회는 첫번째 식탁에 앉아있는 나부터 한·일 단원의 소개와 이번의 고찰목적에 설명하면서 진행되었다.

데이비스씨는 「기술사」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다. 「통상산업성의 관련기관인가?」하고 여러 가지 유사단체를 예로 들어 질문했다. 일한 양국 모두 열심히 과학기술청 소관의 자격임을 설명했다. 데이비스씨는 겨우 납득했다.

데이비스씨는 자기 입장에서인지 두만강개발에 대하여 장미 빛 꿈을 품고 있다. 특히 북조선에 관해서 그 발전 성공에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에 각국간에 협조의 틀이 짜여졌다. 먼저 나진 중국에 이어 북조선·러시아도 개발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 1995년에 각국간의 협의·조정

조직으로 중국, 러시아, 북조선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와 거기에 몽고, 한국을 추가한 5개국으로 된 「자문위원회」가 정식 조인되고, 발족하였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협의로, 국경에서의 출입국, 통관수속의 간소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UNIDO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포럼을 각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9월에는 나진, 선봉에서 개최하며 일본에서 직접 전세 선박이 입항해서 포럼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당시 한국은 이 개발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며 신탁투자도 연결건수가 많았다. 구미기업도 적극적인데 반해 일본은 극히 적었다.

고찰조사단으로부터는 1992년에 제안된 300억불의 투자액과 환추안(防川)에서의 항만의 가능성이나 환경문제 등의 질문이 나왔다. 환경문제 이외에는 어느 것이나 부정적이며, 특히 300억불 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였다.

구보타씨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 식사도 드는등 마는등 퇴석했다. 모처럼의 점심인데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떠났다.

데이비스씨의 통역은 허씨가 일부 맡아서 일어로 했다. 허씨의 일어는 먼저 말한 대로 간사이(關西) 사투리가 있다. 약간 빠른 말씨라 듣기 어려운 때도 있다. 영어는 아메리카인에게 배운 탓인지 미국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약간의 자료를 받고, 금년 7월 중순 니이가타시에서 개최가 확정되어 있는 북조선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하는 투자 설명회에서 재회를 약속하고 헤어진다.

두번째 식탁의 한국 사람들은 이 모임의 의미를 허씨로부터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무슨 모임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을 기노이, 가다오카씨에게 묻고 있다. 따라서 모임 중에 첫번째 식탁은 열심인데도 두번째 식탁에서는 큰소리로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 백두산 관광객의 위세

**나까야마** 이제 장부궁호텔과도 작별이다. 저녁때 드디어 현지로 들어간다. 곧 베이징을 떠나 엔지(延吉)로 향한다. 베이징 공항 2층의 출발 로비에 들어가 국내편을 기다린다. 신화항공기(新華航空機)에는 국경 가까이의 장백산, 즉 조선족의 백두산 참관 관광객으로 만석이다. 연길에 도착했을 때에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연길 공항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인데 날이 저물어 거의 모습이 안 떠오른다. 한국인 단체 승객의 위세에 압도되었다. 철책의 도착구를 나오니까, 작년에 내 통역을 맡아 주었던 젊은 여성 김씨가 웃는 얼굴로 반기고 있다. 역시 낯선 땅에서 아는 이가 말을 걸어오면 좋다. 조선족인 그녀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웠다. 그리고 현재는 연길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 거의가 두만강에 얽힌 일이 많은 것 같다. 작년보다 한층 프로다운 세련미가 배어있다.

「나까야마 선생 작년에 오셨죠. 선생은 작년보다 중국어 말씀씨가 좋아지셨는데요. 작년에는 발음이 좋지 않았는데 많이 공부 하셨군요.」

놀라웠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다. 일상용 단어를 늘어놓았을 뿐이다. 간단한 말을 약간 하면 「북경어가 훌륭하신데요」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는데, 곧 바닥이 보인다.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낡은 트럭이 엔진소리를 내고 가까이 온다. 아무렇게나 실려온 화물을 한 개씩 짐표(Tag)를 확인하고 내주는 것이다. 짐짝 위에 작업원이 세 명 정도 올라서서 한 개씩 짐 주인을 찾는다. 극히 원시적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이다. 자기 손으로 꺼내지 못하므로 화물에 접할 수 없다. 거의 짐짝이 비위질 때 쯤에야 우리들의 짐이 나왔다. 거의 꿈무늬 짜다.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니 허둥거리도 소용없다. 모두들 받은 짐을 재확인하고 버스로 바이산따샤 호텔(延邊白山

大廈)로 향한다. 밤이라서 건물 조명이 아름답다. 낮에는 어땠을까? 엉뚱한 상상을 했다. 중국에서는 종종 아침이 되면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던 경험 때문이다.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충칭(重慶) 등의 대도시도 모두 그렇다.

밤에 짐을 내리고 나니 상당히 늦은 저녁이 됐다. 큰 식당의 한 구석에서 2개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인지 오래된 탓인지 식욕이 없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씨의 소주를 조금 마셨다. 다음 순서는 이 고장의 배갈이다. 여태껏은 절대 안 마셨는데, 여기에서는 맥주 아니면 마실 것이 없다. 사람교제도 있고 해서 조금은 마셔야 한다. 이번 여행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향이지만 배갈을 조금 마시기로 했다. 마셔보니까 웬만하다. 그러나 상표에 따라 품질의 차가 크다.

한·일 사람들이 주거나 받거나 한다.

진짜 두만강 시찰은 내일 아침부터이다. 2인용 방을 혼자 썼다. 아무래도 대도시를 떠나면 호텔사정이 나빠진다. 내일은 훈춘(琿春)으로 가는데 앞일이 걱정이다. 북조선은 어떨까? 아무래도 중국보다 깨끗하지 않겠는가? 침대 속에서 이모저모를 생각한다.

## 더블 서비스

**윤갑구** 나는 버릇처럼 호텔 안내사와 지도를 구해서 살펴보았다. 백산 호텔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실내수영장이 있으며 항공권 판매처도 설치되어 있다.

나이 많으신 김선생과 같은 룸을 쓰게 되었다. 분리된 방이 하나 더 있는 스위트룸이다. 연변대학에 근무하는 김선생의 친척이 찾아 왔다. 조선족과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었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두 분에게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드렸다. 밤이 깊어져서 그분은 돌아갔고, 김선생은 분리된 옆방으로 들어가 곧 코고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출국하기 전부터 과로가 겹친 데다가 무거운 짐을 싣

고 내리고 끌고 다니다 보니 담이 걸리고 피곤했다. 탁자 위에 마사지 안내가 있다. 조선말이 가능한 마사지 걸도 있다고 했다. 나는 피로도 풀고 싶고 이국 여자에 대한 호기심도 발동하여 전화를 걸었다. 약 반시간쯤 살살 힘없이 주물러주고는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세요?」 한다.

나는 「더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더볼 서비스를 원하세요?」

「얼마내면 되지요?」

「두 배 내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 호텔 사우나에서의 마사지 요금보다 상당히 싼값이다. 다른 기대감도 있고, 현지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더 해 달라고 청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역시 반시간쯤 후에 「다 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또, 더해주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다.

「그러면 내일 또 부르세요」 한다. 친절하고 상냥한 아가씨였다.

## 망향의 도시 「도문」

**| 나까야마 |** 아침에 짐은 복도밖에 내 놓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로비까지 실어다 주지 않는다. 무슨 착오겠지 아니면... 할 수 없다.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북조선용으로 넣어둔 일용품의 비누, 초콜릿, 껌들 때문인지 너무나 짐이 무겁다. 대 식당에서 모두 모여서 아침식사를 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찰이기에 모두들 힘을 낸다.

어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훈춘의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짐을 싣고, 거의 2인용 좌석을 혼자 썼다. 운전기사는 무뚝뚝하지만 사람은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한족(漢族)은 아니다. 덩치 큰 몽고인이다. 투먼(圖們)으로

버스를 달린다. 옌지(延吉) 시내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한글과 한문을 병기해 놓았다. 소수민족 보호와 의식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원칙상 이유이다. 당연한 것 같이 한국 재벌의 광고가 눈에 띈다. 연길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 도읍지이다.

잠시 달려가니까 우측에 도문시가 멀리 보인다. 2차선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계속된다. 병행해서 훈춘 철도도 건설이 끝나 있다. 시험운전중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그후 개업했다고는 하나 기어코 달리는 열차는 볼 수가 없었다.

**| 윤갑구 |** 연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국경도시 도문은 '여러 갈래의 물이 합하는 곳'이란 만주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주시와 접해 있다.

14만 명의 인구 중 59%가 조선족이며 동북의 주요 내륙 통상도시로서 중국에서 가장 큰 제지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과의 국경선인 국문, 도문 대교에는 북한 행 차량과 북한 상인들이 자주 눈에 띄며 두만강 건너편 마을 정경도 아련히 새겨진다. 한반도를 먼 이국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문은 분단의 서글픔에 눈시울이 젖어드는 망향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도문 좌측에는 평우동(鳳梧洞) 전적지가 있다.

평우동 항일 전적지를 지나 량수(涼水)에서 미장(密江) 사이에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두만강이 바로 바른쪽 아래에 다가왔다.

## 두만강 푸른 물에

**| 윤갑구 |** 조선족 안내원이 「저기 두만강이 보입니까!」 고 외쳤다. 그때 누구인지도 모르게

「두만~강~푸른물에~노젓는 뱃~사공~ .....」을 부르기 시작했다. 곧바로 합창으로 이어졌다.

어서 가서 저 두만강 물을 만져보고 꿀꺽 꿀꺽 마셔보고 싶었다.

차를 세우자마자 나는 두만강 독을 뛰어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맑고 푸르리라고 상상했던 두만강 물은 검붉은 흙탕물이었다.

손을 넣기도 싫을 정도로 지저분한 물이다. 장마가 진 것도 아니고 가물은 것도 아닌데 이처럼 오염이 되었다니 큰 걱정이다. 이물을 떠다가 수질분석을 하는 일도 경제기술교류협력 타당성조사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물을 채수하기로 하고 우선 사진을 찍고 싶었다. 두만강 건너 북한땅의 산과 들이 아름답워 보인다. 농가 옆에 한가롭게 쉬고 있는 황소의 모습에서 어릴 때 뛰어놀던 시골 생각이 사무쳐 왔다.

북한이 고향이라고 했던 연로하신 분의 눈시울이 적셔져 있음을 보면서 윤석중 선생이 지은 「고향 땅」이 생각났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달-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뻘-국새 울겠네」

### 고향의 강

**윤갑구** 이 곳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아 가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카메라를 옆에 있는 일행에게 내밀었다. 이십전 십으로 내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그분은 두만강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나를 찍고, 연이어 강 건너 북한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과한 도문 터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것이 마지막 장이라 필름이 자동으로 되감기는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군용 지프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군복차림과 사복차림의 청장년이 4~5명 달려와서 나에게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당황해 하면서 사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뒷걸음



국경에서 찍었다고 문제가 되었던 사진(중국 도문터널)

을 쳤다. 우리를 안내하던 중국인 운전사와 아이씨가 앞장서서 “왜 그러느냐?”고 하며 그들과 시비가 벌어졌다.

그들은 중국 국경경비대라고 했다. 국경지대에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사진기를 압수하겠다고 했다. 아이씨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했다면서 사진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절충안으로 필름의 마지막 부분 한 장만 국경에서 찍은 것이니 그곳만 잘라주겠다고 했다. 억지로 뚜껑을 열고 필름의 끝 부분을 10cm 정도 잘라주었다. 그들은 그 필름 토막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가버렸다. 필름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광선이 들어가서 나머지 사진도 못 쓸 것으로 생각했었다. 다행히도 귀국해서 사진을 뽑아보았더니 한 장도 훼손된 것 없이 모두 멀쩡하게 잘 나왔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손석우 선생이 작사한 「고향의 강」을 부르며 실향민처럼 흐느낀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강  
자-금도 흘러가-는 가슴속-의-강  
아-아 아-아 어느-덧……」 ❌

(다음호에 계속)